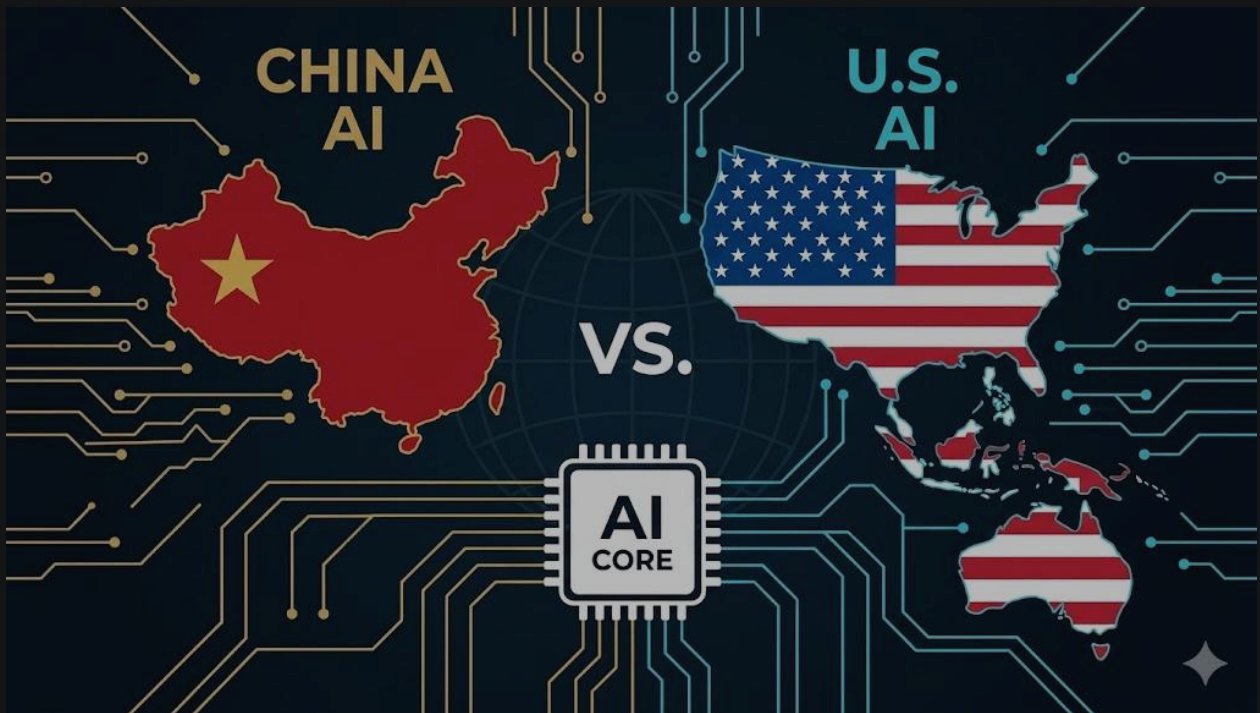


HANARO

ETF Monthly

May. 2026



Contents

01. Market Focus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4월 금융시장 이슈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발표
- 1분기 수출데이터로 살펴본 ETF이슈

02. HANARO Insight

제국주의 2.0, 지정학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의 투자전략

03. 5월 추천상품

04. HANARO ETF 수익률 TOP5

05. HANARO ETF Line-Up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4월 금융시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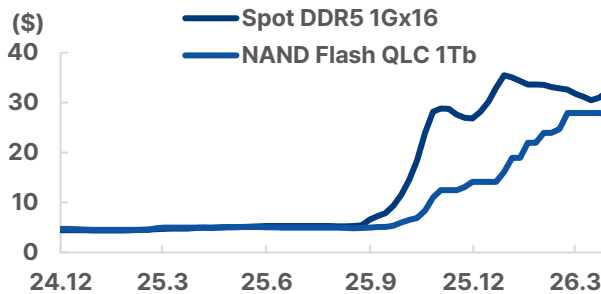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돈복사는 계속된다

삼전, 하이닉스
어닝서프라이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세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으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6년 1Q 잠정 영업실적 공시에서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사상 첫 영업이익률 40%대를 돌파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6년 1Q 실적 발표에서 사상 최초 분기 매출 50조원을 돌파하고, 최신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72%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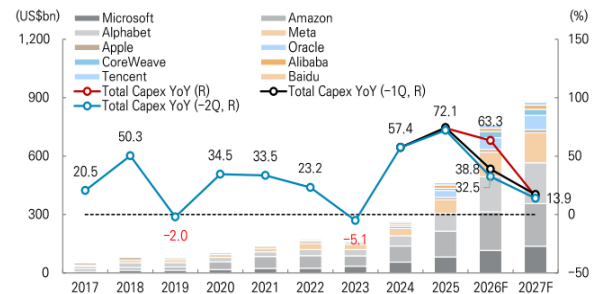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AI 데이터센터 CAPEX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전에는 HBM 중심의 실적 성장이 나타났다면, 이후 AI 기술이 추론 중심으로 변하면서 DRAM, NAND 등 레거시 반도체 내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요 급증이 확대된 점이 슈퍼사이클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4월 반도체 수출 역시 전년대비 +18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신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DRAM, NAND 메모리 가격 추이



출처: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4.30

■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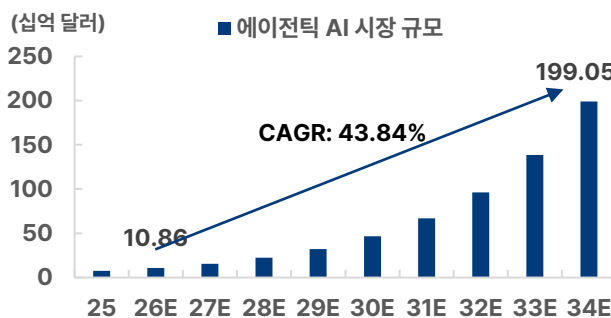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기준일: 2026.04.13

슈퍼사이클의 지속
안정성 기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확장성과 견조함이 유지되면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성의 경우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 추론 및 에이전틱 AI의 보편화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제품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면서 과거 단기적 변동성과 달리 업사이클의 지속이 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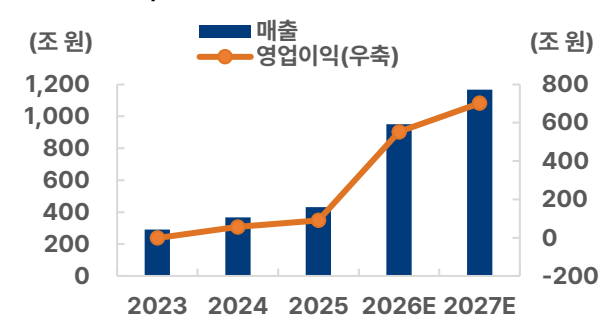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AI발 메모리 수요 성장세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6년, 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약 552조원, 702조원이라는 유례없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반도체 투자를 지속해야 할 이유입니다.

■ 에이전틱 AI 시장 규모 전망



출처: Precedence Research,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5.12.01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영업이익 합계 추이



출처: Fnguide,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4.30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4월 금융시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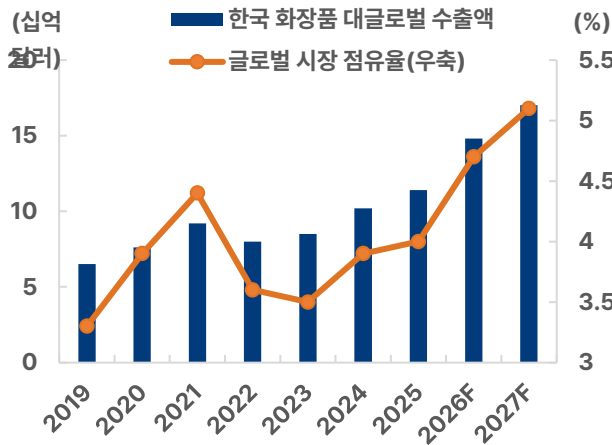
▷ 1분기 수출데이터로 살펴본 HANARO ETF 이슈: K-뷰티, 모두가 바르는 Made in Korea

새로운 핵심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K-뷰티

26년 1분기 한국의 수출 지표는 이례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7.4% 증가한 2,1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호황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글로벌 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반도체, 전력 기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이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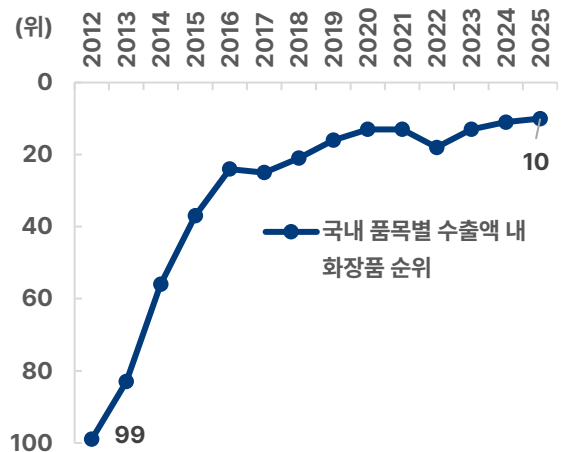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반도체와 전력 기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 바로 화장품이라는 점입니다. 26년 1분기 화장품 수출 금액은 대중국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향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3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도 25년 114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26년에는 전년대비 +29.8% 성장한 148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이른바 K-뷰티 산업은 연간 수출액 순위로 12년 99위에서 25년 10위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는 K-뷰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미국·일본·유럽·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수출 품목 역시 다각화에 성공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견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화장품 수출액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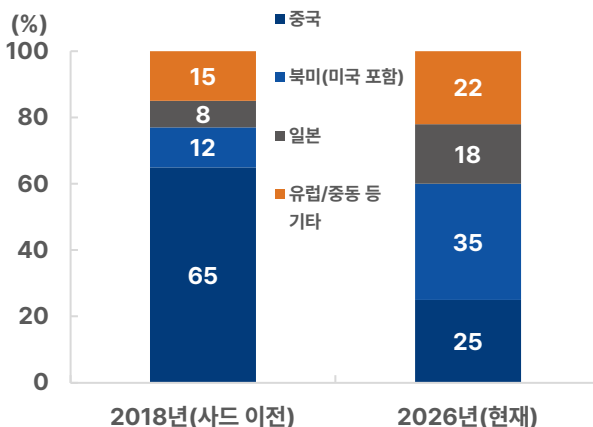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uromonitor,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3.31

■ 품목별 연간 수출액 기준 화장품 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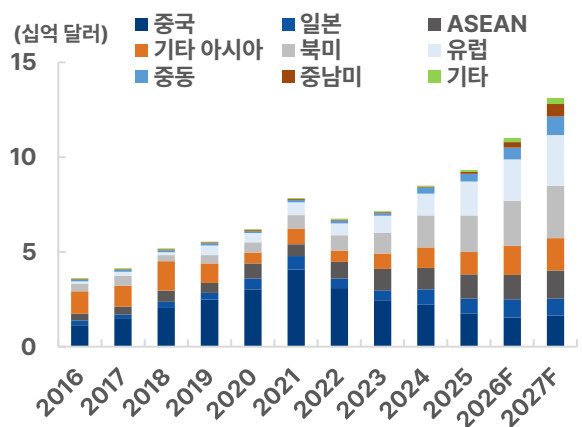
출처: K-stat,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3.12

■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비중 변화



출처: 한국무역협회,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4.16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뷰티 시장 지역별 규모 전망



출처: K-Stat,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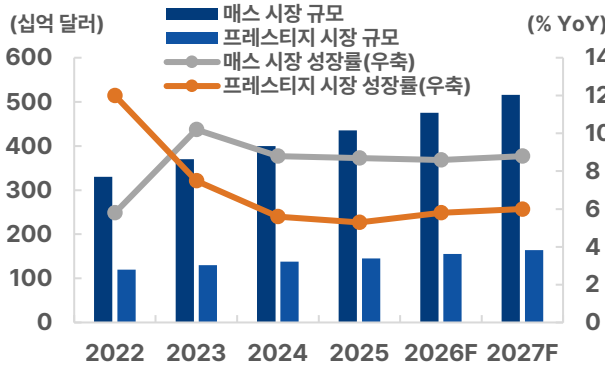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4월 금융시장 이슈

K-뷰티 성공 요인

K-뷰티 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격하게 성장한 요인으로는 1) K-컨텐츠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2) 인플레이 장기화로 인해 럭셔리 브랜드 중심에서 가성비, 기능성을 중시하는 매스티지 제품 중심으로 변화한 뷰티 소비 트렌드, 3) 유기적인 뷰티 산업 밸류체인에 기반하여 레거시 대비 빠른 트렌드 대응 및 제품 출하가 가능한 한국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 4) 고도화된 화장품 유통 인프라로 낮아진 해외 진출 장벽, 5) 기술 융합을 통한 뷰티 테크의 급성장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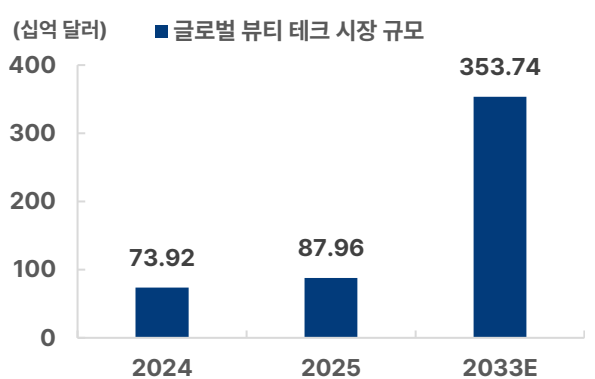
특히 K-뷰티 산업은 단순 미용 범주를 넘어 더마 코스메틱(기능성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미용 의료 기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최적화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중 뷰티 디바이스나 미용 의료 기기의 경우, 단순 기기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자사 화장품과의 연계를 통한 라인 전략이나 소모품 판매를 통한 반복 매출을 통해 기존 대비 수익성 안정화가 가능해 졌습니다.

■ 글로벌 화장품 매스&프레스티지 시장 규모



- 출처: 신영증권,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3.12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뷰티테크 시장 규모



- 출처: SKYQUEST, NH-Amundi 자산운용
- 기준일: 2025.1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뷰티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이처럼 최신 트렌드 및 기술을 신속하게 파악, 결합한 뒤 단시간에 제품 개발 및 유통이 가능한 K-뷰티 밸류체인인의 기민함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아마존, 유타 뷰티 등 거대 글로벌 리테일러나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국내외 뷰티 대기업들 역시 K-뷰티 산업에 주목하게 만들며 독립적인 카테고리 분리시키거나 주요 인디 브랜드 인수에 나서는 것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또한 K-뷰티 산업은 일부 지역, 특정 품목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신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에 성공하여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기획, ODM/OEM, 유통), 뷰티 디바이스, 미용 의료기기 등 한국의 뷰티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HANARO K-뷰티(479850)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국주의 2.0, 지정학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의 투자전략

■ '제국주의 2.0' - 제국은 충돌한다

제국주의 2.0 2026년의 세계는 더 이상 안정적인 국제 질서와는 거리가 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이어온 미국 일극체제의 균열이 발생한 자리에는 지정학적 위기와 분쟁의 일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분쟁은 더 이상 국지적인 사건에 머물지 않고 다발적인 여진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상시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 이는 흡사 전세계 열강이 식민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했던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세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2026년은 바야흐로 '제국주의 2.0'시대의 서막입니다. HANARO ETF는 이 혼란의 시대를 돌파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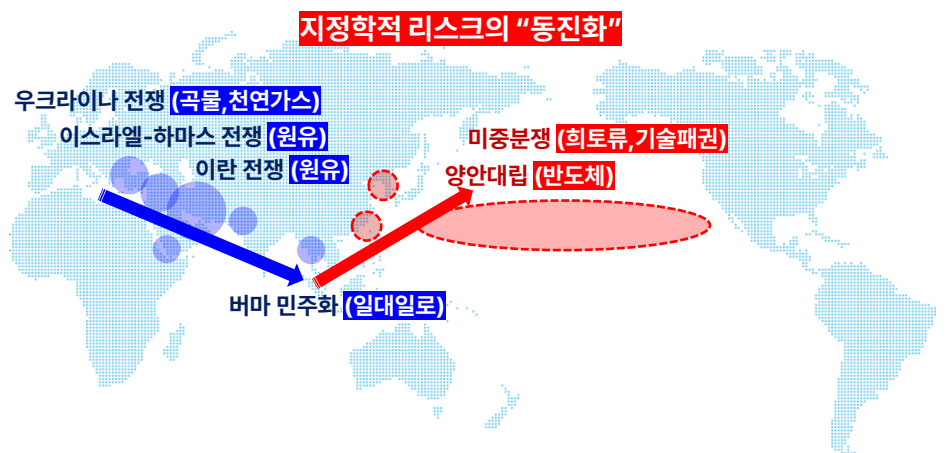
지정학적 위기 동진(東進)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지구 위에서는 복수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 전쟁은 종전 협상의 안개속에서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촉발한 중동의 전쟁은 이란 전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하며 확대된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확산과 일상화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한편, 중동 분쟁을 틈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베이징의 행보는 오늘날의 지역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동유럽에서 시작해 중동을 거쳐 동진(東進)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의 고리는 이미 태평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협과 태평양 제해권을 놓고 미중이 격돌하는 양안전쟁의 가능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분쟁의 향배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패권을 둘러싼 제국의 충돌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의 동진(東進) - 제국의 충돌로 수렴



- 출처: CPAC, LCI, CNBC, NH-Amundi
- 기준일: 2026.04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2.0, 지정학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의 투자전략

■ 미중 패권전쟁의 패러다임 전환 - 무역(관세) 전쟁에서 AI 기술 전쟁으로

패권경쟁의 변화

과거 미중 갈등이 주로 관세 부과와 무역 수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전쟁' 이었다면, **2026년의 패권 전쟁은 그 본질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 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 선언을 통해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자립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중국 제조업의 부상을 우려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부터 관세 폭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것이 1라운드, 무역 및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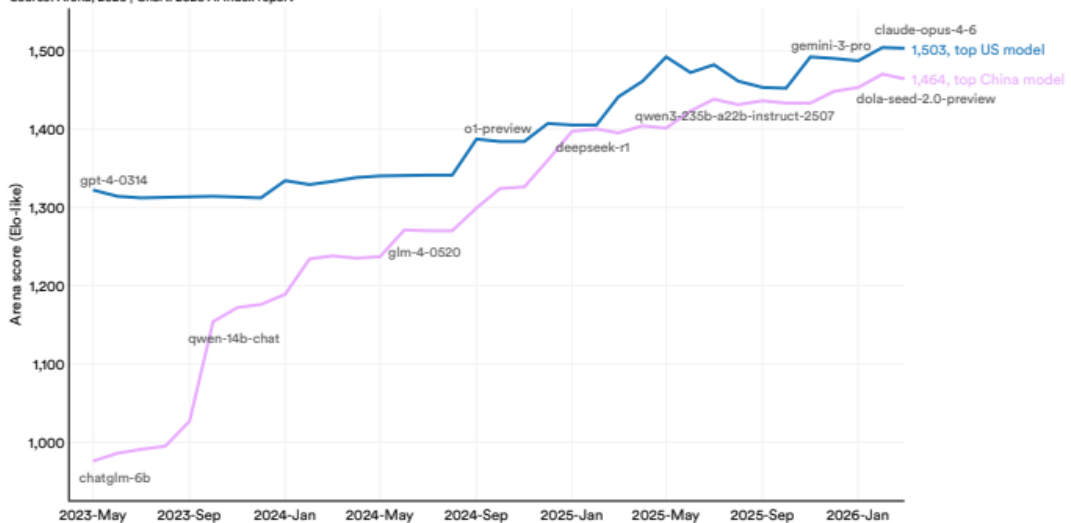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동하며 전선을 기술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시작으로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이어진 기술 제재는 이 경쟁이 단순한 교역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은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중국 테크 기업 수신품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초대형 AI인프라 투자와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선언하며 **AI패권 확보를 위한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26년 3월 양회에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지능형 경제' 를 국가 핵심 동력으로 공식 선언하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농업까지 전 산업에 AI를 접목해 **경제 활동 전반을 AI화하는 '기술 굴기(崛起)'를 천명하였습니다.** 중국의 AI모델의 경쟁력은 미국의 선두 모델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미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미국, 중국의 AI모델 성능 비교

Performance of top United States vs. Chinese models on the Arena

Source: Arena, 2026 | Chart: 2026 AI Index report



- 출처: Arena, 2026, Chart: 2026 AI Index report (2026.04.13)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2.0, 지정학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의 투자전략

■ 투자전략 - AI 패권전쟁 속 구조적 투자 기회

AI밸류체인 전략자산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전장은 이제 외교 무대를 넘어 반도체와 같은 AI밸류체인이 주 전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 진영이 각자의 AI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면서, **밸류체인의 핵심 요소들은 단순한 산업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AI 밸류체인을 해부하면 각 권역의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과 전략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AI생태계의 분절화와 전략자산의 부각

국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핵심 밸류체인	GPU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소재
내용	AI 모델 연산의 핵심 두뇌	AI추론시대 막대한 데이터 처리	반도체 설계를 물리적 칩으로 구현	반도체 핵심 소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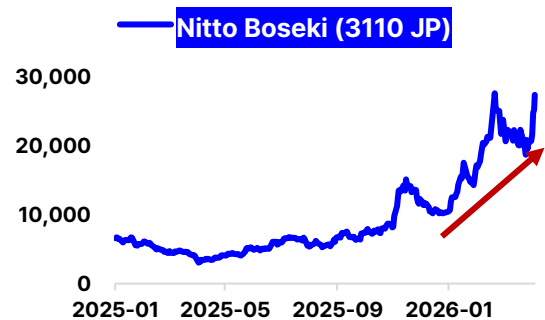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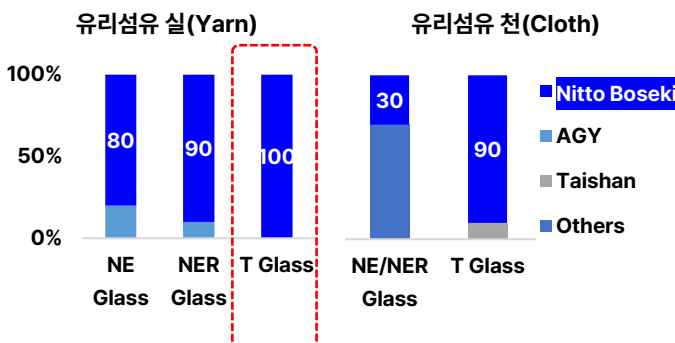
* 표: NH-Amundi 자산운용

패권전쟁의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에게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 성장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각 권역의 필수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AI 핵심소재 기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재와 첨단소재를 전략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AI 공급망의 뿌리인 소재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첨단소재 관련 기업들은 올해 두드러진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섬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소재기업 니토보(Nittobo), AI서버에 탑재가 늘어나는 고부가 MLCC를 생산하는 삼성전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부가가치 AI핵심소재 부각 - 일본 니토보의 주가 추이

Nitto Boseki 유리섬유(Glass Fiber) 시장점유율 추정치



- 출처: 메리츠증권 (2025.11), NH-Amundi 자산운용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2.0, 지정학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의 투자전략

■ 전략자산을 선점하는 방법 - HANARO Fn K-반도체,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HANARO
투자 솔루션

미중 AI 패권전쟁에서 한국이 점하고 있는 위치는 명확합니다. HBM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기를 비롯한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핵심 공급망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수록 이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HANARO K-반도체 ETF는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ETF로 주목해야 할 상품입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ETF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 대비해, AI 전략자산인 반도체와 핵심소재 관련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충돌하고, 전장은 AI 밸류체인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전장의 지도를 읽는 투자자에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기회의 시간입니다. 제국주의 2.0 시대, HANARO ETF와 함께 현명한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ANARO Fn K-반도체 편입종목 상위 - 삼성전기 주가상승으로 비중 확대

순위	종목명	비중(%)
1	SK하이닉스	24.24
2	삼성전기	23.97
3	삼성전자	21.88
4	한미반도체	8.06
5	리노공업	2.89
6	DB하이텍	2.47
7

AI서버용 고부가 MLCC, FC-BGA의 공급부족 부각. 최근 기업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삼성전기

* 출처: NH-Amundi 자산운용. 기준일: 2026.04.28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반도체 및 핵심 소재, 부품 비중 확대

순위	종목명	비중(%)
1	NVIDIA	5.29
2	Sandisk	4.95
3	Intel	4.51
4	Alphabet	4.12
5	FormFactor	3.71
6	Bloom Energy Corp	3.64
7	Advanced Micro Devices	3.62
8	ARM Holdings	3.50
9	Corning	3.50
10	삼성전기	3.49
11	GE Vernova	3.43
12	Keysight Technologies	3.26
13

GPU, CPU, 낸드 등 반도체 관련주 및 MLCC, 광통신 등 AI핵심소재 관련주 비중 확대

* 출처: NH-Amundi 자산운용. 기준일: 2026.04.28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HANARO Fn K-반도체 – 국가대표 반도체 ETF, K-반도체 대표기업 20종목에 투자

투자포인트

- K-반도체 산업을 하나로, 국내 반도체 대표기업에 투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AI밸류체인 특화된 K-반도체에 투자
- AI시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격상된 K-반도체의 위상, 메모리 반도체 수퍼사이클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SK하이닉스	24.24
2	삼성전기	23.97
3	삼성전자	21.88
4	한미반도체	8.06
5	리노공업	2.89
6	DB하이텍	2.47
7	주성엔지니어링	2.29
8	이오테크닉스	2.26
9	원익IPS	2.02
10	HPSP	1.36

종목명	HANARO Fn K-반도체				
종목코드	395270				
상장일	2021.07.30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FnGuide K-반도체 지수				
설정단위	50,000좌				
수탁/사무	하나은행/한국펀드서비스				
총보수	운용	지정참가	수탁	사무	
0.45%	0.36%	0.05%	0.02%	0.02%	

- 기준일 26.04.28,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 현실이 된 피지컬AI, 핵심종목 선별 투자

기본정보

- 피지컬AI패권 경쟁, 기술진화와 국가간 투자 집중으로 발전 가속화
- 피지컬AI를 향한 AI밸류체인의 유기적 성장- 반도체, 에너지, 어플리케이션 분야 종목 발굴
- 피지컬AI 투자 내러티브의 정교한 포착, 핵심종목 선별 투자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NVIDIA Corp	5.29
2	Sandisk Corp/DE	4.95
3	Intel Corp	4.51
4	Alphabet Inc	4.12
5	FormFactor Inc	3.71
6	Bloom Energy Corp	3.64
7	Advanced Micro Devices Inc	3.62
8	ARM Holdings PLC	3.50
9	Corning Inc	3.50
10	삼성전기	3.49

종목명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0040S0)				
종목코드	2등급 (매우높은위험)				
상장일	2025.04.22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Solactive physical AI index				
설정단위	1CU 당 50,000좌				
수탁/사무	신한은행, 한국펀드파트너스				
총보수	운용	지정참가	수탁	사무	
0.66%	0.55%	0.01%	0.02%	0.02%	

- 기준일 26.04.28,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4.28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전력설비투자 3M 수익률(세전) +74.41%	종목코드: 491820 규모: 2,018억 상장일: 2024-0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발전의 최대병목 전력인프라.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 국내 전력설비 기업 수출 전성기,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HANARO Fn K-반도체 3M 수익률(세전) +61.33%	종목코드: 395270 규모: 2조 7,355억 상장일: 2021-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시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격상된 K-반도체의 위상, 한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 • HBM, DRAM, SSD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추가 성장 모멘텀 유효
HANARO CAPEX설비투자 3M 수익률(세전) +53.77%	종목코드: 454320 규모: 1,407억 상장일: 2023-0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원자력, 건설, 공작, 풍력 등 국내 인프라 투자 종합 선물세트 • 글로벌 AI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불러온 설비 투자의 수퍼사이클
HANARO Fn 친환경에너지 3M 수익률(세전) +48.49%	종목코드: 381570 규모: 126억 상장일: 2021-0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AI투자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는 친환경 에너지 섹터 • 태양광, ESS, 수소, 풍력 등 국내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HANARO 증권고배당TOP3+ 3M 수익률(세전) +47.45%	종목코드: 473640 규모: 866억 상장일: 2025-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증시의 구조적 리레이팅의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증권업종 •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적극적인 대형 증권주 TOP3에 집중투자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4.28

구분	ETF 명칭	순자산총액 (억원)	성과				
			1M	6M	1YR	YTD	
시장 대표	국내	HANARO 200	5,286	24.25%	80.00%	200.05%	65.54%
		HANARO 200TR	2,435	24.26%	80.08%	200.14%	65.60%
		HANARO MSCI Korea TR	1,053	24.40%	82.82%	209.74%	67.15%
		HANARO 코스닥150	328	3.19%	32.40%	74.06%	32.67%
		HANARO 200 TOP10	259	16.66%	56.60%	137.35%	51.33%
		HANARO KRX300	179	22.72%	76.23%	188.16%	62.97%
	미국	HANARO 미국S&P500	158	8.11%	7.21%	33.24%	6.51%
국내 채권	만기채	HANARO 27-06 회사채(AA-이상)액티브	1,040	0.43%	0.50%	0.78%	0.52%
		HANARO 26-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621	0.35%	1.02%	1.02%	0.84%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180	0.93%	-5.55%	-7.04%	-2.58%
	채권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65	0.95%	-3.61%	-4.34%	-1.60%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607	0.27%	1.45%	2.91%	0.99%
국내 테마	반도체	HANARO Fn K-반도체	27,457	41.00%	150.94%	405.95%	121.13%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308	17.45%	58.82%	146.88%	73.78%
	전력	HANARO 원자력iSelect	10,845	32.39%	80.94%	326.01%	84.65%
		HANARO 전력설비투자	1,936	52.03%	112.35%	402.73%	112.19%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1,387	36.14%	80.35%	282.62%	84.62%
	월배당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	998	7.35%	82.86%	82.15%	88.80%
		HANARO K고배당	549	7.61%	40.35%	83.69%	31.56%
	K컬처	HANARO Fn K-POP&미디어	433	-5.78%	-23.56%	-11.04%	-20.86%
		HANARO K-뷰티	381	15.89%	15.21%	42.76%	29.96%
		HANARO Fn K-푸드	158	4.96%	4.26%	7.03%	5.96%
	조선	HANARO Fn조선해운	1,138	25.90%	10.93%	71.87%	27.96%
		바이오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	164	-7.37%	14.47%	43.98%
	로봇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331	17.54%	-7.93%	-7.93%
	기타	HANARO 코리아밸류업	664	22.56%	86.64%	205.20%	68.08%
		HANARO Fn전기&수소차	496	35.29%	78.11%	174.57%	82.16%
		HANARO e커머스	474	6.05%	2.40%	22.30%	2.01%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364	15.61%	8.94%	43.66%	18.34%
		HANARO Fn5G산업	218	32.72%	102.28%	232.38%	89.9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07	21.73%	74.58%	179.49%	62.02%
		HANARO Fn친환경에너지	124	32.98%	56.69%	128.29%	84.00%
		HANARO Fn K-게임	119	7.78%	8.80%	10.97%	18.89%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74	16.22%	15.96%	50.48%	25.33%
		HANARO Fn K-메타버스MZ	68	24.63%	45.89%	81.06%	45.37%
해외 테마		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1,051	9.16%	37.58%	96.07%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481	28.76%	43.95%	108.49%	46.06%
	AI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458	32.41%	40.00%	120.17%	47.54%
		HANARO 유럽방산	89	-4.58%	-4.31%	4.70%	1.11%
	기타	HANARO 글로벌럭셔리S&P(합성)	160	2.92%	-6.54%	11.28%	-7.59%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56	10.45%	-3.38%	13.20%	-11.67%
		HANARO 글로벌워터MSCI(합성)	33	2.35%	4.52%	14.34%	6.44%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세전수익률 기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583호 (2026.05.04~2027.05.03)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자료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